여러분의 기억이 역사관의 기록이 됩니다.

기억을 넘어 기록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유물·자료 기증 안내

기증대상

일제강제동원·일제강점기
관련 전 분야의 유물·자료
(기록물, 사진, 영상 및 자료 등)

기증조건

무상기증

기증자예우

기증증서 발급
명예의 전당 설치
소정의 기념품 제공

자료활용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전시·교육·연구자료 활용

기증방법 공식 누리집에 게시된 기증원 작성 ▶
기증 희망 유물·자료의 사진과 함께 우편 또는 이메일 송부

문의 국립일제강제동원 소장품 담당자 051)629-8616

공식 누리집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48532 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 320번길 100 (대연동 산 204-1)
Tel 051 629 8600 **Fax** 051 629 8619 **Homepage** www.fomo.or.kr/museum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소식지 Fomo
2024 하반기 vol.33 Forced Mobilization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소식지**

Fo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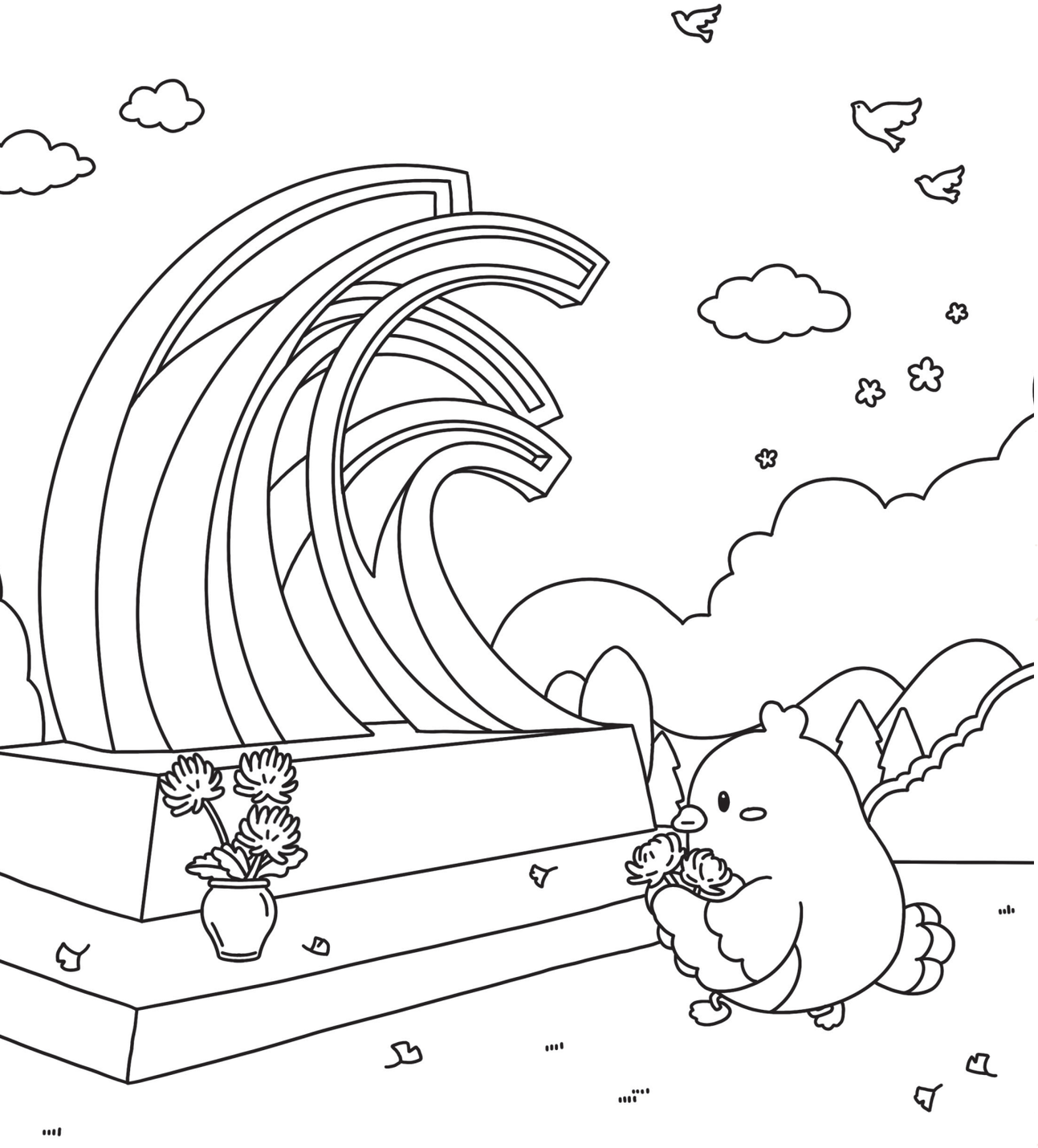
Vol.33 Forced Mobilization

2024 하반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소식지**

FoMo

Forced Mobilization

2024 하반기
Vol.33

재단소식

04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하나로
06 오키나와,
그리고 부평초 같은 일제강제동원의 삶
10 유족들의 눈으로 恨의 장소를 확인하다
12 우키시마호, 조세이탄광,
원폭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14 일제강제동원 역사의식 제고와 희생자 추모 강화

특집

16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 규명 노력

역사관소식

18 기획전시 '기억을 걷는 시간'
19 테마전시 '강제동원지 광산'
20 전국 순회 중인 역사관 전시
21 NEW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22 애국심이 쑥쑥, 포모 종이인형 만들기
24 포모와 함께 한
여름방학 어린이체험관 프로그램
26 역사관에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까?
28 지역민과 더 가까이 다양한 지역 축제 속 역사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만난 역사관

30 사도광산 바로 알기, AI 웹툰교실
33 사도광산 바로 알기, AI 독후감 대회
34 사도광산 바로 알기,
미스터리 역사탐사-수습기자의 모험
36 식민지 통치를 위한 일제의 교육정책과
문화사업, 그리고 조선인
40 포모의 소장자료 소개
42 역사관의 새로운 유물을 소개합니다

함께 만드는 역사관

44 무더위 속 더 뜨거운 열정을 배워왔습니다
46 도슨트의 특별활동 역사관 포모즈
47 근로장학생 체험기
48 역사관을 찾은 사람들

우리 모두 다 같이

51 매월 4일은 '역사관 안전점검의 날'
52 알아봅시다, ESG 경영
57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
58 더 나은 역사관을 만들어주세요
2024년 역사관 소식지 만족도 조사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소식지
발행일 2024년 11월 29일 통권 제33호
발행인 심규선 I **편집인** 홍미료
편집위원 강창석 김성곤 배가령 배연우
기획 · 편집 반선영 김정원 I **디자인** 효민디앤피
홈페이지 www.fomo.or.kr/museum

소식지 FoMo는 일제강제동원을 뜻하는 Forced Mobilization의 약자입니다.
이번 호의 표지는 2024년 필리핀 추도순례 장소인 필리핀 리잘공원의
'추도와 평화 기원의 탑'에서 헌화하는 포모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친환경 용지
콩기름 인쇄

우리 역사관은 미래세대를 생각하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지는 친환경 용지와 콩기름 잉크를 사용해 제작했습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하나로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전국합동위령제

이지수 피해지원국 유족지원팀

매년 전국합동위령제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온다. 위령제 날이면 어디선가 노란 나비 한 쌍이 날아와 화창한 하늘을 수놓는다. 어쩌면 희생자들의 넋이 나비가 되어 아버지, 어머니, 형제, 친구, 그리고 동포를 그리워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살피러 오는 것은 아닐까 간절히 바라본다.

지난 9월 5일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와준 노란 나비들의 힘찬 날갯짓과 함께 '2024년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전국합동위령제'의 막을 올렸다. 부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동시에 진행한 이번 위령제에는 유족과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눴다.













1.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헌화하는 유가족
2. 춘천시 평생학습관에서 생중계 영상을 시청하는 모습
3. 전국합동위령제에서 추모사 중인 유족대표 김경남 씨
4. 「강제동원 관련 AI 글짓기대회」 중학생부 대상 수상자가 작품을 낭독하는 모습
5. 전국합동위령제에 참석한 유가족
6.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추모탑에 헌화하는 유가족들

특히 올해는 그동안 거리가 멀어 위령제에 참석하기 어려웠던 강원 지역 유족들을 위해 특별히 춘천시 평생학습관에 생중계 영상을 시청하고 헌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하나로 모여 '전국 합동 위령제'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

한편, 전국합동위령제를 맞이하여 전국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강제동원 관련 AI 글짓기 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AI가 제시하는 강제동원 관련 질문에 참가자가 답변하면 AI가 이를 바탕으로 초고를 작성하고, 참가자가 자신의 생각을 더해 글을 완성하는 참신한 방식으로 진행하여 학교·학부모·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대회는 초등부와 중등부로 나누어 각각 대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을 선정하였고, 위령제 당일에는 중학생부 대상 수상자인 전라남도 나주시의 빛가람중학교 송민서 학생이 직접 단상에 올라 자신의 작품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강제동원 문제를 기억하고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소중한 기회를 나누었다.

재단은 이번 위령제가 유족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유족과 국민이 함께 강제동원 희생을 기리는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오키나와,
그리고 부평초 같은 일제강제동원의 삶

이기병 기금관리단 팀장



'헌법 9조의 비'에서 헌법 9조 전문을 읽어보는 유족들

핏줄의 절반이 제주도인 나에게 오키나와(沖繩, Okinawa)는 처음이었다. 나하(那覇, Naha) 공항은 관광객들로 북적였고 따갑고 더운 햇살은 어릴 때 맞은 불주사처럼 찌릿하고 날카로웠다. 일본 최서단 섬인 오키나와는 문득 한국 최남단에 있는 제주도를 떠올리게 했다. 두 섬은 본토에서 떨어진 채 바다 위에 홀로 서서 그들만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고립감을 느끼며 살아왔다.

내가 설렘보다는 먹먹한 마음으로 오키나와를 방문한 이유는 긴 세월 슬픔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 속에 이 땅에서 숨진 한국인 희생자들의 유가족을 모시고 위령제를 개최하고 오키나와 일제 강제동원의 현장을 마주하기 위함이었다. 강제동원으로 아버지를 잃고 제대로 먹지도 배우지도 못한 채 굴곡진 삶을 살아온 그들의 고통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린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고 한다. 오키나와와 제주도도 그랬다. 두 섬은 오랫동안 '평화의 섬'이라는 꿈을 꾸었지만 그 이면에는 전쟁과 고통의 역사가 자리하고 있었다. 오키나와에서는 태평양 전쟁 당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6월 23일은 오키나와 전투 종전과 전몰자를 추도하기 위해 지정한 '위령의 날'이다. 이 전투에서 약 21만 명이 사망했고, 그중에는 조선인 1만여 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오키나와 평화기념공원 내 한국인위령탑 앞에서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추도식을 거행한 후의 기념사진

일본은 수많은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하여 군인, 군속으로 내몰고 노동력 착취에 이용했다. 그 분명한 증거로 '오키나와 평화공원 전몰자 묘원'과 '제주 알뜨르 비행장'이 남아있다. 태평양 전쟁의 열세에 몰린 일본은 수많은 조선인을 오키나와로 강제동원했다. 일본군에 배속된 조선인들은 비행장과 진지 구축 등 힘든 노역에 동원되었고, 많은 조선인들이 집단자결이나 폭사·아사·학살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

'진혼'을 넘어 '평화'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두 섬은 한때 군사기지 역할도 톡톡히 했다. 제주도는 중국 침략의 전진기지이자 미군의 본토 상륙에 대비한 결사 항전의 군사기지로, 오키나와는 한국전쟁 때는 공군기지로, 베트남 전쟁에서는 미군 후방 기지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었다.

오키나와는 현재, 베트남에게 '악마의 섬'이라 불리던 과거를 뒤로하고, 중국을 포위하는 해양 열도라는 지정학적 이점과 확장되는 인프라, 기업 투자, 정부 지원을 통해 아시아의 주요 물류 거점으로 변모하고 있다. 물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분산된 생산 거점과 물류 체계를 효율화하면 기업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고, 물류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새로운 성장산업도 될 수 있음을 오키나와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중개와 운송 및 배송에서 높은 물류비가 발생하는 제주의 물류 산업 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오키나와의 해운 물류 산업 발전의 뒤에는 조선인 노동자들이 있었다. 바다는 넓고 그 끝은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서 배는 떠난다. 강제동원된 노동자들의 거친 손끝에서 오키나와 해운 물류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졌고, 그들의 고통과 땀방울이 그 과정에 녹아 있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어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오키나와의 발전이 아팠던 과거를 치유하고, 제주도와 교류 협력의 장을 확대하여 두 섬이 동아시아의 평화의 중심으로 발전하여 새로운 장을 여는 매개체가 되기를 바란다.

'호국'(護國)'이란 말이 떠오른다. '점령'과 '착취'라는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아픈 역사를 가슴 깊이 새기고,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기리는 일 또한 호국과 애국심을 실천하는 일이다.

오키나와와 제주도 바다의 어디쯤, 고국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부평초(浮萍草) 같은 일제강제동원 희생자들이 긴 밤 지새우지 말고 영면(永眠)의 바다로 깊고도 편안하게 떠나시기를 바란다. 나는 희생자들을 오래도록 기억하며, 결코 작별하지 않겠다.

1. 2024년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국외추도순례　2. 오키나와 육군병원 하에바루 호군 20호(沖縄陸軍病院南風原壕群20号) 방문
3. 국외추도순례 유족간담회



1



2


3

오키나와 하에바루 문화센터 박물관. 이 마을에서 숨진 주민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있다.



유족들의 눈으로 恨의 장소를 확인하다

필리핀 지역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추도순례

김영기 피해지원국 유족지원팀

“아버지가 돌아가신 곳에서 인사하려고 가져왔는데..”

이명자 씨(80·여)가 가방에서 신문지로 곱게 싼 오래된 사진 하나를 꺼내들었다. 빛바랜 흑백사진 한 장이 나왔다. 코팅된 사진 속 인물은 이명자 씨 아버지였다. 사진 속 아버지는 본인을 임신한 어머님과 함께 나란히 서 계셨다.

지난 11월 5일 늦은 저녁,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는 일제가 벌인 전쟁에 끌려간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형을 잃어야만 했던 유족들이 하나둘 모였다. 11월 5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유족의 필리핀 지역 국외 추도순례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번 추도순례는 필리핀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아시아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 대만 및 남양군도 지역의 유족들도 참여하였다.

처음 목적지는 필리핀 클락(Clark)으로, 비행기로 4시간의 여정을 거쳐 도착하였다. 첫날의 늦은 도착으로 이튿날 일정부터 강제동원지와 제2차 세계대전 유적지를 방문하였다.

유족들은 6일 오후 마닐라로 이동해 일제강제동원 당시 징용에 끌려가셨던 이들의 아버지, 형제, 할아버지가 있는 곳을 순례하고, 필리핀 마닐라 베이를 찾아 국화꽃 한 송이를 바닷물에 띄워 보내는 헌화식을 거행했다. 그



강제동원 피해자 이상빈 씨의 딸 이명자 씨가 준비해 온 사진





추도순례 출국 전 기념촬영 및 심규선 이사장의 인사말을 듣는 유족

리움과 슬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들의 회한과 탄식이 흘러나왔다.

헌화식을 마친 유족들은 연이어 필리핀의 국민 영웅인 리잘 장군의 이름을 딴 리잘공원에서 한비 수교 기념으로 건립한 ‘추도와 평화 기원의 탑’에서 추도식을 거행했다. 유족들은 잃어버린 가족들의 흔적으로 마음 시린 장소에서 지나온 세월에 대한 한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다.

필리핀에서 형을 잃은 이영일 씨(84)가 유족대표로 희생자의 마음을 담은 추도사를 낭독했다. 80여 년을 이어온 외로움이 한 번에 북받쳐 올라서였을까.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흘간의 추도순례 일정에서 잃어버린 역사의 흔적을 찾았음에도 한국으로 돌아오는 유족들의 마음은 편치 않았으리라. 어느 누구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채 그 의미가 다소 퇴색해 버린 머나먼 이국땅의 흔적을 살펴보니, 지난 역사적 아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역사적 사실이나 강제동원에 대한 단순한 이해에서 벗어나, 피해자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가해자가 성찰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만이 유가족들이 더 이상의 슬픔을 잊고 영원한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일 것이다.





헌화식 도중 눈시울을 붉히는 유족들



추도와 평화 기원의 탑에서 거행한 추도식 종료 후 기념촬영





유족 대표 이영일 씨의 추도사 낭독

우키시마호, 조세이탄광, 원폭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국제 학술대회

김진자 피해지원국 유족지원팀



1



2



3

1. 국제 학술대회 전경 2. 국제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질의하는 유족 3. 국제 학술대회 사회자·발표자·토론자 기념사진

제1세션에서는 후세 유진(布施祐仁) 씨가 **'우키시마호 명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제2세션에서는 이노우에 요코(井上洋子) 공동대표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조세이탄광 갱구를 열기까지의 과정과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재단은 지난 11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하반기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우키시마호, 조세이 탄광, 원폭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였다.

제1세션에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일본 정부로부터 우키시마호 관련 명부 공개를 이끌어 낸 일본 저널리스트 후세 유진(布施祐仁) 씨가 '우키시마호 명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 배상 추진 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한영용 전 회장과 자매지 서일본신문과 공동기획으로 우키시마호 사건을 다뤘던 부산일보 이승훈 기자가 지정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제2세션에서는 1991년부터 '조세이 탄광 수비상(水非常·수몰사고)을 역사에 새기는 모임'에서 활동해 온 이노우에 요코(井上洋子) 공동대표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갱구를 열기까지의 과정과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지정 토론자로는 이노우에 공동대표와 30년 이상 친밀하게 교류해 온 일본 조세이 탄광 희생자 대한민국 유족회 양현 회장과 과거 국무총리 산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세이 탄광 조선인 강제동원과 수몰사고 진상조사를 담당했던 허광무 박사(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소 소장)가 참여했다.

제3세션에서는 한국원폭피해자 지원과 비핵평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원폭피해자후손회 이태재 회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그는 '강제동원과 원폭피해 2·3세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주제로 법적인 제한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원폭피해 2·3세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소개하며 원폭피해자의 정의(定義)에 이들을 포함시키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원폭피해자후손회 심진태 합천지부장과 경북대학교 김경남 교수도 지정 토론자로 참여하여 원폭피해자의 고충과 특별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유족들이 참석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고령화되는 유족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현안에 대한 궁금증과 불만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재단은 앞으로도 일제강제동원 문제와 관련된 문화·학술사업 및 조사·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유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제3세션에서는 한국원폭피해자후손회 이태재 회장이 **'강제동원과 원폭피해 2·3세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원폭피해자의 정의(定義)에 원폭피해 2·3세들을 포함시키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제강제동원 역사의식 제고와 희생자 추모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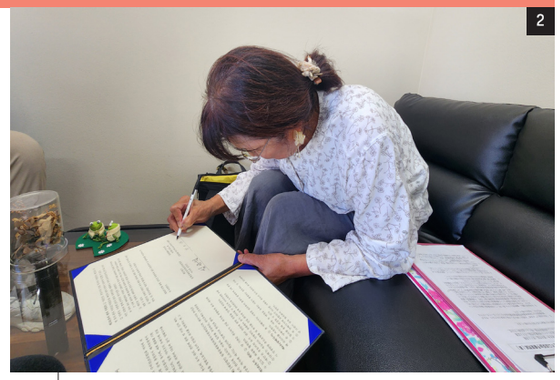
추모조형물 건립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이규희 피해지원국 유족지원팀

2024년 1월 16일 이노우에 요코 공동대표(장생탄광의 수비상을 역사에 새기는 모임)는 재단을 방문하여 심규선 이사장과 면담하였다. 이노우에 대표는 지원금액보다 국가 지원의 상징성이 더 중요하다며 조세이탄광 추모비에 대한 관리 지원을 요청했다. 조세이탄광은 많은 조선인이 강제노역을 당해 '조선탄광'이라고 불린 곳으로, 일제강제동원과 관련된 대표적인 피해 장소다. 이에 재단은 7월 30일 장생탄광의 수비상을 역사에 새기는 모임과 조세이탄광 추모조형물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역사의식 제고 및 희생자 추모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1. 2019년 팔라우 지역 국외추도순례 당시 한국인 희생자 추념 평화기념탑 앞에서 촬영한 기념사진
2·3. 조세이탄광 추모조형물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 기념촬영(24.7.30)









팔라우 지역 '태평양전쟁 희생자 추모조형물' 유지관리 지원 양해각서 체결(24.6.24.)

한편 필리핀 대사와 한인회로부터 팔라우 지역 '태평양전쟁 희생자 추모조형물(한국인 희생자 추념 평화기원탑)' 유지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요청이 있었다. 이에 재단은 2024년 6월 24일 팔라우 한인회와 추모조형물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지원금 지원 외에도 추모조형물 및 추념공원 관련 주요 현안 공유를 통해 추모조형물 관리에 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팔라우는 1939년 이후 전쟁 인력 충원 목적의 한인 노무자 송출이 급증한 곳으로, 6,000여 명이 징용되고 2,000여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다.

재단은 또 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조형물(우호평화지탑)을 건립한 뒤 조선인 유골을 수습하여 40년 이상 매년 위령제를 개최하는 일본 고려사와 11월 11일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PALAU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 규명 노력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심층 분석의 소명을 받은 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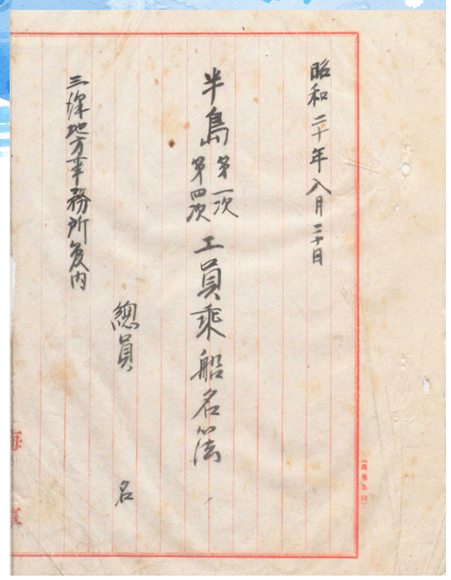
서인원 피해지원국 팀장

우키시마호(浮島丸) 출항지인 일본 아오모리현(青森県) 오미나토(大湊) 지역은 일본해군의 북방거점으로 1942년부터 북방방위를 위한 요새화 작업을 추진하였고, 주변의 비행장, 항만건설, 방공호 건설, 철도 공사 등에 조선인들을 강제동원 하였다.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오미나토 해군 시설부 군속(군무원)으로 강제동원되었다.

우키시마호 침몰사건은 일본 오미나토항에서 수천 명의 조선인을 태우고 부산항을 향해 출항(1945. 8. 22.)한 우키시마호(4,730톤)가 1945년 8월 24일 17시경 교토 마이즈루(舞鶴) 앞바다 300m 지점에서 폭발과 함께 침몰한 사건이다. 침몰 원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유족 입장과 일본 측 입장을 정리하였다. 일본 측은 승선 인원을 3,735명이라 주장하나, 한국 측(유족 및 시민단체)은 승선 규모를 6,000~8,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생존자 중 일부는 승선자가 7,500~8,000명이라 증언하기도 했다.



우키시마호희생자추모비(역사관 7층 추모공원 내 임시 안치 중)



일본 제공 승선자 명부 일부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에 대한 유족·일본측 입장 비교

쟁점	유족 입장	일본 측 입장
승선경위	승선 강요	귀국 희망
침몰원인	일본해군 고의 폭파	연합군 부설 기뢰와 충돌
사망자	승선규모 6~8천 여 명 중 3,000명 이상 사망	조선인 3,735명 중 524명(14.0%) *일본해군 승무원 255명 중 25명(9.8%)

일본 측은 “3,200명을 구조하여 침구, 의복, 식량 등을 지급하고 부상자에게는 의약, 진료, 입원 등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나 생존자의 증언에 의하면 옷 한 벌을 받았을 뿐이며 제대로 된 식량지원 등은 없었다고 한다. 사고 후 일본은 ‘재일조선인연맹’과만 교섭을 시도했으며, 연맹 해산 이후로는 더 이상의 교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2년 우키시마호 생존자 및 희생자 유가족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2001년 교토 지방재판소에서 일부 승소하였으나, 2003년 오사카 고등재판소에서는 패소로 판결이 뒤집혔다.

한국 정부는 일본 도쿄 유텐지(祐天寺)에 안장된 유해를 3회(’71년, ‘74년, ’76년)에 걸쳐 총 241위를 국내로 봉환하였다. 현재 유텐지에 남아 있는 유해는 280위(남한 275, 북한 5)이며, 이 중 89위의 유족을 확인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유족 및 일본 정부와 유해봉환을 위한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재단은 2019년 10월 교토부 마이즈루시 ‘우키시마호 순난자의 비’ 앞에서 우키시마호 희생자추도식 행사를 주최했으며, 유족 10명이 참여하였다. 2020년부터 재단은 매년 8월 24일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희생자 추모제 행사에 역사관을 행사장으로 제공해왔다. 현재 역사관 7층 추모공원에는 우키시마호 희생자 추모비를 임시로 안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2023년에는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의 일환으로 ‘전후 일본의 우키시마호 사건 진상조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학술연구를 진행했으며, 유해 조사 사업으로 우키시마호 침몰 유해 매장지에 대한 일부 조사도 실시하였다.

2024년 9월과 10월, 일본 정부는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53건(9월 19건, 10월 34건)을 한국 외교부로 전달하고, 외교부는 이를 행정안전부로, 행정안전부는 다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 전달하여 분석 중이다.

재단은 1차로 12월 16일까지 이 명부의 작성 경위, 기록된 승선자의 수, 출신지별 승선자 수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기록된 전(全) 승선자를 DB화하여 정밀 분석을 할 계획이다.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명부의 심층 분석과 DB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증액 및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가족들의 기억을 중심으로

기획전시 '기억을 걷는 시간'

지난 9월 27일(금)부터 역사관 6층 기획전시실에서 <기억을 걷는 시간>을 전시 중이다. <기억을 걷는 시간>展은 강제동원의 피해와 고통을 넘어, 그 속에서 피어난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전시로 구성하고자 노력했다.

주요 전시 유물로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최초의 자살특공대(일명 가미카제) 피해자 인재웅의 비망록,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망 소식을 전한 사망내보, 사할린 억류자들의 귀환 희망을 담은 화태억류동포귀환희망자 명부, 강제동원 사실을 증명하는 징용령서 등이 있다.

이번 전시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기억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피해자들의 편지, 증언 영상, 유물, 사진들을 토대로 일제의 강제동원의 피해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그 속에 담긴 가족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였다. 강제동원의 시작-과정-귀환의 순서로, 다양한 유물과 사진자료, 영상자료를 제공하여 관람객이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강제동원의 피해가 그저 교과서나 책 속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로 느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이번 기획전이 강제동원이라는 아픔 속에서도 면면히 살아있던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아가 강제동원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공감하고, 세계 평화와 인권을 생각하는 작은 출발점이 된다면 더욱 좋겠다.

<기억을 걷는 시간> 파사드와 전시 전경





가장 악명 높았던 강제동원지 '광산'을 중심으로

테마전시 '강제동원지 광산'

역사관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독립기념관과 협업으로 진행해오던 <이달의 독립운동가>展을 종료하고, 올해부터 새로운 테마로 <강제동원지 광산> 전시를 마련했다.

이번 전시는 일제강점기에 가장 악명 높은 강제동원지였던 '광산'을 테마로 8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역사관 6층 기획전시실에서 각각 사도광산·홋카이도 지역 광산·규슈 지역 광산·주부 지역 광산을 주제로 4차례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사도광산을 주제로 한 1차 전시는 8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개최하였다. 피해자 신태철의 사진과 피해자 윤재옥의 자녀인 윤석윤의 사진, 피해자 이기상의 국민노무수장(수첩) 등 유물 3점과 함께 사도광산에서의 강제동원 역사를 해설 패널로 보여줌으로써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사도광산에 대한 균형 잡힌 역사적 사실을 조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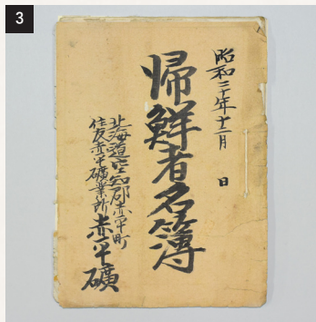
홋카이도 광산을 주제로 한 2차 전시는 10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진행하였다. 이 전시에는 피해자 윤영욱이 돈을 빌린 차용증, 피해자 이봉옥이 강제동원 된 조선인의 명부를 작성한 친보기, 피해자 정해동이 조선으로 귀환하는 인원의 명단을 작성한 귀선자명부 등 유물 3점을 해설 패널과 함께 전시했다.

3차와 4차 전시는 규슈 지역 광산(10월 25일부터 11월 28일)과 주부 지역 광산(11월 29일부터 12월 31일)을 주제로 각각 3점의 관련 유물과 해설 패널로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1. <강제동원지 광산> 전시 전경　2. 친보기-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소재 미쓰이三井광산㈜ 스나가와砂川광업소에 강제동원 된 조선인 191명의 이름과 주소 등이 기재된 명부
3. 귀선자명부-홋카이도北海道 소라치군空知郡 아카비라쵸赤平町 소재 스미토모住友 아카비라赤平광업소 아카비라탄광赤平礦에서 조선으로 귀환하는 자歸鮮者의 명부







전국 순회 중인 역사관 전시

김천시립 박물관

2023년 역사관에서 열린 캘리그라피 특별전 〈우리는 기억합니다-일제강제동원 희생자를 추모하며〉展의 작가들이 작품 59점을 역사관에 기증하였다. 역사관은 일제강제동원의 역사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이 기증 작품을 바탕으로 김천시립박물관과 공동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展을 개최하였다. 김천시립박물관에서 열린 이번 전시에는 새로운 공간에 맞춰 제작한 조형물과 캘리그라피 작품을 함께 전시하였다. 8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진행된 전시는 많은 관람객을 동원하며 막을 내렸다.

나주학생독립 운동기념관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로비에서는 2024년 10월 1일부터 특별순회전 <잊힌 그날의 기억>展이 전시 중이다. 이번 전시는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잊힌 그날의 기억> 전시는 일제 강제동원의 역사를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롤업배너 형태로 제작하여 순회전시를 하고 있다. 2023년에는 10개의 기관에서 약 6,700명이 관람하며 당시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측은 교육 효과가 매우 높다는 평을 받고 있다며, 더 많은 분들이 <잊힌 그날의 기억> 전시를 보러 오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1. 2. 김천시립박물관에서 개최한 <우리는 기억합니다> 전시 전경

3.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잊힌 그날의 기억> 전시 전경

NEW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역사관 4층 상설전시실 영상 제작

4층 상설전시실을 관람하다 보면 쓸쓸한 유골함이 관람객을 맞이하는 공간이 있다. 그 앞에는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다. 그렇다. 수많은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차디찬 이방의 땅에 묻혔다. 역사관은 이역만리 남의 땅, 남의 나라에서 무주고혼(無主孤魂)이 된 분들을 추모하기 위한 영상을 새롭게 제작했다.

나비가 된 피해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과거에서 현재까지 날아와 너무나도 많이 바뀌어 버린 고향의 모습을 마주한다. 다행이라고 웃어주는 것인지, 돌아오지 못한 슬픔에 잠긴 것인지 알 수 없는 나비는 유골함으로 들어가 상념에 잠긴다. 우리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마주하겠지만, 그들을 향한 애도의 마음은 하나일 것이다. 돌아오지 못한 그들의 유골함을 대면하는 관람객도 영상을 관람하며 깊은 상념에 잠겨보길 바란다.

*해당 영상은 12월부터 4층 상설전시실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에서 관람할 수 있다.

"이역만리 남의 땅, 남의 나라에서
억울하게 희생되어,
무주고혼이 된 당신들이여.
당신의 백골도 영혼도 주인이 있고,
조국이 있다.
멀지 않은 장래에 당신들을 데리러
올 그날까지 고이 잠드시라."

-일본 시즈오카현(靜岡縣)
시미즈시(淸水市)
조선인 유골 안치당 무연납골당 글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영상 일부

광복절 기념

애국심이 쑥쑥, 포모 종이인형 만들기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되찾은 지 79주년이 되는 해이다. 역사관은 광복절을 뜻깊게 보내기 위해 역사관을 찾은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를 진행하였다.

역사관 마스코트인 포모의 디자인을 활용한 '타투스티커 체험'과 '포모 종이인형 만들기'를 주요 행사로 마련하였고, 포모의 느린 우체통, 어린이 체험관 행사, 도슨트 해설 서비스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제공하였다. 특히 올해는 4층 카페테리아에서 '태극기 마카롱'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인기를 끌었다.

행사 시작부터 종료까지 종일 참여자들로 역사관이 붐볐으며, 역사관 개관 이래 최다 관람객 수를 기록했다. 행사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만족'이 77%, '만족'이 21.6%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기념일에 개최하는 행사에 가족 단위의 관람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우리 역사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연령들을 아우르는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해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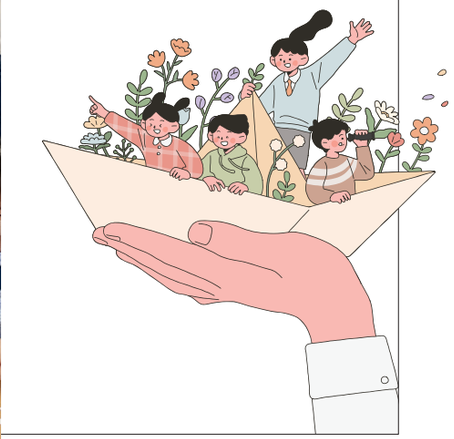








1·2. 포모 종이인형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3. 포모 종이인형 만들기 완성작
4. 광복절 기념 카페테리아에서 준비한 태극기 마카롱
5. 포모의 느린 우체통 행사에 참여하는 관람객들
6. 전시실을 관람하는 어린이들
7. 포모 타투스티커를 체험하는 어린이들



여름방학 기념

포모와 함께 한 여름방학 어린이체험관 프로그램

여름방학을 맞이한 어린이들을 위해 역사관은 다양한 어린이체험관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7월 16일부터 8월 23일까지 총 333명의 어린이가 참여했다.

이번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어린이체험관을 방문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세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그중 신규 프로그램인 '포모네컷'은 역사관의 대표 캐릭터인 '포모'를 활용한 색칠하기 교구로, 이용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프로그램은 일제강제동원의 네 가지 유형을 알아보고 무드등을 만드는 '별 헤는 밤'이었다. 포일 아트를 활용한 '액자 속 빛나는 김구' 역시 광복절 주간 동안 많은 어린이들의 선택을 받았다.

역사관은 방학 때마다 다양한 어린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역사관을 찾는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배움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1. '별 헤는 밤'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무드등을 꾸미는 참여자들
2. 광복절, 어린이체험관을 방문한 부모님과 어린이들
3. '포모네컷' 프로그램 참여 어린이들
4·5. '액자 속 빛나는 김구' 프로그램 참여 어린이들



역사관에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까?

대면·비대면 교육

다양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일제강제동원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역사관은 대면·비대면 교육을 운영하였다. 올해에는 4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운영하였으며, 총 123개 기관 8,912명이 참여하였다. 대면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수업을 듣고 교구를 만들어 보며 강제동원의 역사를 배울 수 있다.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은 우편으로 받은 교구를 유튜브 영상을 보며 교구를 완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와 함께, 역사관에 방문하는 관람객을 위한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인 역사관 미리보기와 모바일 체험활동지도 운영하고 있다. 2025년에는 새로운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준비하여 교육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사업 운영·접수 일정은 역사관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란다.

대면 교육 프로그램

1. **내 책상 위의 소녀상:** 평화의 소녀상 석고상을 만들며 알아보는 일본군'위안부'
2. **별 헤는 밤:** 평화소망 무드등을 만들며 알아보는 강제동원의 4가지 유형
3. **태극기 휘날리며:** 태극기 액세서리를 만들며 배워보는 태극기와 독립운동
4. **출발! 역사관 탐험대:** 박물관 직업군에 대해 알아보는 역사관 전시 탐방
5. **포모와 지옥섬 이야기:** 군함도를 주제로 한 일제강제동원 이야기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1. **다시 쓰는 방구 아저씨:** 동화 '방구 아저씨'를 통해 강제동원에 대해 알아보기
2. **내 책상 위의 소녀상:** 소녀상 종이인형을 만들며 알아보는 일본군'위안부'
3. **긁어, 보자:** 애니메이션 감상 및 스크래치북을 통해 노무동원 알아보기
4. **역사관 미리보기:** 역사관 교재를 통해 강제동원의 역사를 배우는 활동지 체험
5. **모바일 체험활동:**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전시 체험 활동지

내 책상 위의 소녀상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석고 부조를 만들고 있다.





별 헤는 밤 수업에서 윤동주 시인의 시와 강제동원의 4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무드등을 만들고 있다.





유치원에서 방문하여 포모와 지옥섬 이야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습이다.





지역민과 더 가까이 다양한 지역 축제 속 역사관



역사관은 부산시 남구 대연동 당곡공원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낮다. 대중교통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못골역과 연결하는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마을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산꼭대기에 위치한 역사관 방문을 꺼려하게 된다. 이러한 낮은 접근성을 보완하고 지역민과 더 가까이에서 만나기 위해 역사관은 다양한 지역 축제에 참여해 체험행사 부스를 운영해 왔다. 올해는 유난히 축제 기간에 궂은 날씨가 이어졌다. 비가 내리고 기온이 떨어지는 날씨에도 역사관 부스를 찾아와 반갑게 인사하고 체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다양한 연령층의 지역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제26회 UN평화축제 '포모랑 나랑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타일 컵받침 만들기'



타일 컵받침 만들기

부산 남구 평화공원에서는 매년 단풍이 들 무렵 UN평화축제가 열린다. 올해 축제는 10월 19일 토요일부터 10월 20일 일요일까지 양일 간 진행하였다. 역사관은 UN평화문화특구의 일원으로서 매년 축제에 참여하여 부스를 운영해왔다. 올해도 지난해 참여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던 '타일 컵받침 만들기' 체험부스로 축제를 찾았다.

'타일 컵받침 만들기'는 나무 받침대에 타일을 하나씩 직접 붙여 나만의 컵받침을 완성하는 체험으로, UN평화축제 기간 동안 역사관 체험부스는 일명 '체험부스 맛집'으로 소문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2024년 박물관 어울림 교육한마당 '별이 빛나는 날에-무드등 만들기'

11월 2일 토요일, 부산박물관 야외마당에서 부산박물관과 부산광역시박물관협의회 소속 16개 박물관이 함께하는 '2024년 박물관 어울림 교육한마당'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부산 지역의 다양한 박물관들이 모여 교육·문화·홍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리였다.

역사관은 '별이 빛나는 날에-무드등 만들기' 교육 프로그램 체험 부스를 운영하였다. 참가자들은 스티커·전구·마카펜을 사용해 와인 공병을 나만의 무드등으로 꾸밀 수 있었다. 와인 공병에 부착하는 스티커에는 일제강제동원의 4가지 유형(군인동원, 군무원동원, 노무동원, 성(性)동원)을 담은 그림이 포함되어 강제동원에 대한 교육 효과를 더욱 높였다.

전구로 반짝이는 와인 공병에 마카펜으로 그림을 그리는 체험 활동에 어린이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큰 관심을 보였으며, 아이들은 무지개, 공룡, 꽃, 토끼 등을 그리며 무드등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박물관 어울림 교육한마당 부스 전경과 참여자들의 모습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만난 역사관

사도광산 바로 알기 | AI 웹툰교실

역사관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고, 사도광산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AI를 활용한 웹툰교실과 웹툰 공모전을 진행하였다. 전국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AI 웹툰 교실에서는 AI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교육 자료를 참여자들에게 배포하고, 사도광산의 역사와 웹툰 제작툴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역사관 유튜브에 교육 영상을 업로드하고, ZOOM을 이용한 온라인교육을 병행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그 결과 교육 자료와 영상은 약 1,500여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또한 온라인 교육을 바탕으로 진행한 'AI 웹툰 공모전'에서는 AI기술 기반 웹툰 제작 툴을 활용해 사도광산과 강제동원의 역사를 알리는 웹툰을 공모하였다. 공모전에는 총 36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으며, 심사를 통해 9건의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수상작들은 역사관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 게시하여 온라인 전시를 진행했고, 전시는 약 4,500여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만난 역사관

사도광산 바로 알기 | AI 독후감 대회

지난 8월 12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 '사도광산 바로 알기-AI 독후감 대회'는 사도광산에 대한 기사를 읽고 독후감을 작성한 후,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 과정은 아이들에게 사도광산 관련 역사적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참가자들은 각자 자신이 읽은 기사에 대한 소감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AI의 도움으로 더 나은 글로 다듬는 과정을 경험했다. AI가 제공하는 다양한 표현과 문장 구조를 통해 참가자들은 더욱 풍부한 내용의 독후감을 작성할 수 있었다.

대회는 10대 미만과 10대 이상으로 나누어 ▲역사 이해도 ▲독후감 창의성 ▲표현력을 기준으로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시상식에서 참가자들은 서로의 수상을 축하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독후감 대회는 '미스터리 역사탐사-수습기자의 모험' 행사에 앞서 진행된 사전 행사로, 역사와 기술을 접목한 두 행사 모두 교육적 가치가 높았다. 독후감 대회에서 쌓은 사도광산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은 심도있는 탐사 경험을 할 수 있었다.

1. AI 독후감 대회 시상식 상장 수여　2. AI 독후감 대회 시상식 전경　3. AI 독후감 대회 시상식 수상자와의 대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만난 역사관

사도광산 바로 알기 | Q

미스터리 역사탐사-수습기자의 모험

재단은 2023년 일제강제동원의 실태 및 피해 사항에 대해 축적한 연구 성과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제강제동원 디지털 역사지도를 구축하였다. 역사관은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들이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드론을 활용한 디지털 역사지도 체험행사 '미스터리 역사탐사 - 수습기자의 모험'을 기획하였다. 행사는 지난 8월 31일 역사관 4층 중앙홀에서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수습기자로 팀을 이루어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정보를 받고, 그 내용을 분석하며 탐사를 시작하였다.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드론을 활용해 전시실 중앙홀 바닥에 설치한 대형지도에서 문제 해결의 단서를 모았다. 모은 단서를 조합하여 보물 상자의 자물쇠를 여는 것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였다.



미스터리 역사탐사 - 수습기자의 모험 행사 전경



행사 포토존에서 사진찍는 참가자



익명의 제보자에게 받은 정보를 분석하는 아이들

이번 행사는 팀플레이를 통해 협동심을 기르는 것은 물론, 드론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참가자들의 흥미를 유도하였다.

또한, 사키토 탄광·구네 광산·오에야마 광산·비바이 탄광·사도광산 등을 표기한 지도를 사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강제동원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기획했다.

드론 비행의 기본 원리를 배우고 직접 조종하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과 팀원들이 서로 협력하여 보물상자를 열었을 때 성취감을 느끼는 모습, 행사가 끝난 후에도 드론과 강제동원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역사와 과학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져, 호기심을 키우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미래의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식민지 통치를 위한 일제의 교육정책과 문화사업, 그리고 조선인

하반기 역사관 인문학특강

역사관은 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키워드를 통해 일제강점기 역사를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인문학특강을 진행해 왔다. 올해 하반기 인문학특강의 키워드는 '교육과 문화'였다. 일제는 효율적인 식민지 통치를 위해 조선인들에게 다양한 교육정책과 문화사업을 펼쳤다. 하반기 인문학특강에서는 일제의 식민교육정책과 문화사업을 통해 일제가 만들고자 했던 조선인의 모습과 조선인의 저항, 그들이 향유했던 문화 등을 통해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은 학교와 사회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

역사관 인문학 특강 시즌 ❷「근대 교육의 역사를 묻다」

1강

일제강점기 교육정책과 교과서 침탈의 역사

허재영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1강에서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일제강점기 식민 지배 아래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다루었다. 이러한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교육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본 후, 그에 따른 조선교육령의 제정과 변화 과정을 순서대로 설명하였다.



2강

조선총독부 편찬 교과서로 본 식민지 아동 만들기

장미경 전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강사

2강에서는 근대 교육 중에서도 당시 아동 및 초등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더욱 흥미를 자아냈다. 특히 일제의 이데올로기가 투영된 일본어와 역사 교과서에 서술된 사례들을 통해 일제가 더욱 충성스러운 신민을 만들어내기 위한 아동 교육을 중요시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3강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식민교육정책과 일본어 보급의 실태

이상원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HK연구교수

3강에서는 당시 제도권 교육기관의 1차부터 4차까지의 조선교육령 전개 과정과 함께, 사회적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 일본어 교육을 '보급기-정체기-확장기'로 나누어 그 경과를 자세히 소개하였다.





4강

근대 학교교육과 신(지식)여성

김성은 대구한의대학교 기초교양대학 교수

4강에서는 일제강점기 시절 여성들이 받았던 교육과 그들의 생활사를 다루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여학교인 이화학당의 역사와 김애식, 이화숙 등 이곳을 졸업한 대표 인물들을 조명했다. 또한, 3·1운동을 비롯한 항일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여성들을 소개하여 가슴에 깊게 새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인문학 특강 시즌2에 참여했던 청강생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식민지 시기의 아동 교과서를 상세히 소개해 주어 언어가 얼마나 소중하고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다.", "접하기 쉽지 않은 흥미로운 강연이라 새로운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가슴이 답답하고 슬픈 역사이지만 똑바로 마주 볼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강의 후기를 남겼다.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은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역사관 인문학 특강 시즌 ❸「근대 문화, 역사를 돌아보다」

1강

‘국책영화’로 본 일제강점기 문화

이정욱 전주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1강에서는 일제강점기에 기록한 다양한 영상을 통해 그 시절 사람들의 모습과 거리를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지원병으로 출전한 전투에서 전사한 인물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도 짧게 만나볼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영화 촬영과 제작에 얽힌 흥미로운 일화도 소개한 강연이었다.





2강

20세기의 SNS, 그림엽서와 기념스탬프를 통한 정보의 환류

김경리 건국대학교 아시아콘텐츠연구소 부소장

1강이 주로 영상을 다루었다면, 2강은 시각적인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강연이었다. 2강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명소 기념스탬프와 그림엽서 문화를 과거와 연결 지어 청강생들의 관심을 환기했다. 또한 당시의 스탬프와 엽서 이미지를 통해 식민지 통치의 효율성을 높이려 했던 일제의 식민지 통치 전략을 알아보았다.



3강

일제강점기 조선의 신여성에 대한 미디어 담론

이경규 동의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소장 및 일본학과 교수

3강에서는 조선시대 봉건 사회에서 탈피하고자 노력했던 주체적인 여성들의 활동을 다루었다. 특히 일제강점기 조선 신여성의 특징을 다룬 1920년대 동아일보와 여성잡지 <신여성(新女性)>의 기사와 사진을 통해 그 모습을 살펴보았다.



4강

근대가요, 저항을 노래하다

장유정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교수

마지막 강의인 4강은 일제강점기의 음악을 주제로 다루었다. <아리랑>을 채보한 외국인 선교사 헐버트의 이야기와 일제강점기에 유행했던 재즈 송, 신민요, 트로트, 만요(漫謠) 등의 각 대중가요 장르별 노래와 가수들에 대해 설명하며 실제 노래도 들려주어 흡인력 있는 강연을 펼쳤다.



인문학 특강 시즌3에 참여했던 청강생들은 “일제강점기의 문화를 국책영화라는 귀한 영상 자료들의 소개를 통해 잘 알 수 있었다.”, “그림과 사진을 활용한 강의가 흥미롭고 유익했다.”, “역사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고, 학문적 깊이를 더할 수 있어 좋았다.” 라는 등 적극적으로 많은 의견을 남겨주었다.

학예사's PICK 소장자료 소개

역사관은 일제강제동원 역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24년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뉴스레터 'FOMORY'를 통해 소장품을 소개했다. 우측의 QR 코드를 통해 역사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게시판으로 이동하면, 각 자료들에 담긴 더 자세한 내용을 읽어볼 수 있다.



2월 설날

남방에서 맞이한 설날
조선인 포로감시원 이야기

피해자 김병수 사진을 통해 본
일제강점기 아시아·태평양
전쟁 시기의 설날 모습 소개



피해자 김병수의 설맞이
떡 찧는 모습 사진

3월 징병제 공포(194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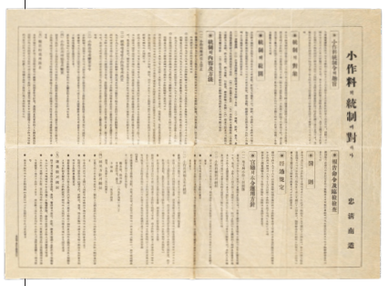
조선인을 징집하라
징병제 선전을 위한
홍보물 이야기

일제가 조선인을 대상으로
징병제를 공포(1943.3.1.)하고,
징병을 독려하는 수단으로
각종 홍보물을 활용한 사례 설명



흥아대박람회 포스터

4월 국가총동원법 공포(1938.4.)



소작료의 통제에 대하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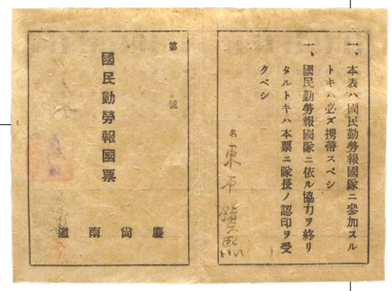
**국가총동원법
공포와 농촌 수탈**
소작료의
통제에 대하야

조선의 농민운동을 봉쇄한
'소작료 통제령'에 대한 소개

5월 근로자의 날(5.1.)

**천황의 은혜에 감사하며,
근로를 생활화하자**
근로보국대

일제가 많은 조선인을
동원하기 위해 실시한
'근로보국대' 제도에 대한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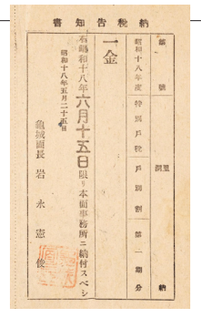


국민근로보국표

6월 미곡강제공출제 시행(1944.6.)

**먼저 국가에 필요한 것은
최대한 공출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쓰도록 각오합시다**
약탈적 식량 공출, 미곡공출제

농촌의 파탄과 이농(離農) 현상을 일으키며,
각종 가혹행위와 처벌로 농촌 사회에
큰 고통을 안겨준 '미곡공출제'에 대한 설명



벼공출할당지정표

7월 국민징용령 제정(1939.7.7.)

**국가의 권력으로
국민을 노역에
종사시키는**
국민징용령
(國民徵用令)

조선인 징용의
대민 홍보를 위해 발행한
책자「조선징용문답」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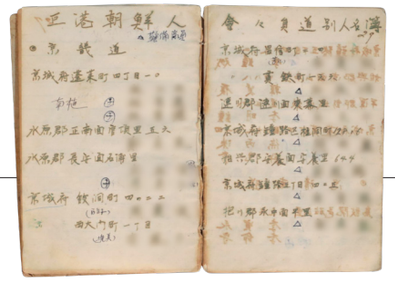


조선징용문답

8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14.)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 특집
기록 속에 숨겨진 이름들

「팔렘방 조선인회 회원도별 인명부」로 본
'기록되었지만 숨겨진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



팔렘방 조선인회 회원도별 인명부

9월 만주사변(1931.9.18.)

부족한 전쟁 자금은 조선 민중의 주머니에서
만주사변 국방헌품기념록

일제의 전쟁 수행을 위해 만주, 조선, 대만, 중국 등에서
헌납 받은 각종 국방물품을 수록한「국방헌품기념록」소개



만주사변 국방헌품기념록

10월 국민총력조선연맹결성(1940.10.)

**한반도 구석구석 전파되는
내선일체(內鮮一體)**
국민총력조선연맹과 애국반

전쟁 시국에 대한 협력과 조선 민중에 대한
강력한 통제, 후방 활동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총독부가 조직한
친일단체 '국민총력조선연맹'에 대한 설명



총력운동총서

11월 순국선열의 날(11.17.)



고려독립청년당운동사 초안

**일제에 항거한
조선인 청년들**
비밀결사단체
'고려독립청년당'

포로감시원으로
동원된 청년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반일 독립운동단체
'고려독립청년당' 소개

12월 조선인 특별지원병제 실시 결정(1937.12.24.)



조선인 육군지원병 훈련개시 전단지

**만들어진
전쟁영웅의 비극**
조선인 특별지원병제

조선인 병역 동원의 시작점인
'조선인 특별지원병제'의
실시 과정과 의미에 대한 설명

역사관의 새로운 유물을 소개합니다

기증유물 구입유물

역사관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실상을 규명해 성숙한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인권과 세계평화에 대한 국민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자 전시 및 연구 자료로 활용할 유물을 기증과 구입을 통해 꾸준히 수집하고 있다. 2024년 하반기에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3건의 기증을 받았고, 공개 경매 구입을 통해 일제강점기 관련 양질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기증유물 1

강제동원 피해자 김수호 님 사진 기증자 김수광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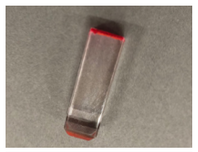


김수광 님은 아버지인 故 김수호 님의 사진을 역사관에 기증했다. 故 김수호 님은 일본 내 해군 소속 군수공장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귀환했다. 사진은 장소 미상의 교량 아래에서 찍은 것으로, 모자·의복·지카다비(일본식 작업화) 등을 통해 강제동원 복장으로 추정된다. 기증된 사진의 뒷면에 적힌 촬영일자와 사진 속 인물의 이름을 출생일자와 제적등본과 비교하여 故 김수호 님의 사진임을 확인했다.

기증유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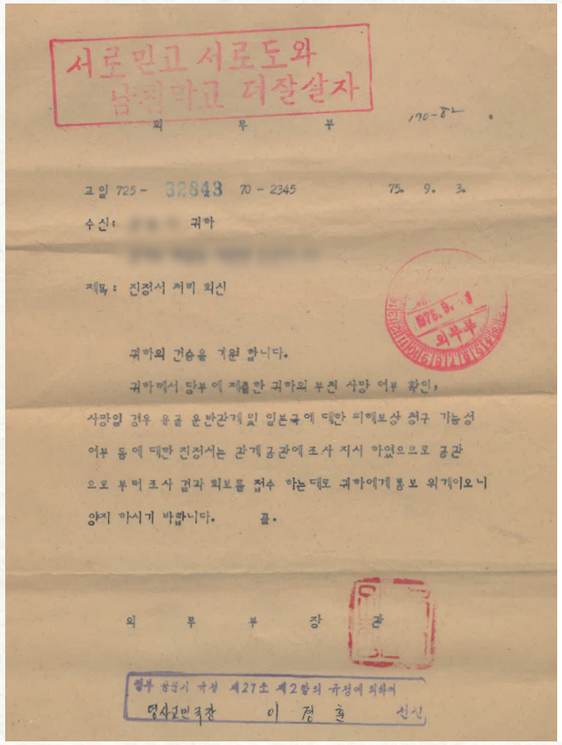
강제동원 피해자 이위상 님의 유품 기증자 이청수 님







기증자 이청수 님은 故 이위상 님의 아들로, 2016년 10월, 역사관에 '제4함대 하라다부대 마쓰오카단 단원 일부 명부'를 기증하였다. 故 이위상 님은 1941년 남양군도로 강제동원된 피해자이다. 고령인 이청수 님은 피해자의 유품(인장, 목제 필통)을 추가로 역사관에 기증하였다.



기증유물 3

강제동원 피해자 김소수 님
사망·유골 인수 관련
외교부 진정에 대한 답신
기증자 김봉시 님

김봉시 님이 부친인 故 김소수 님의 부상 여부 확인과 유골 인수, 일본 정부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 등을 외교부에 진정한 후 회신 받은 외교부 문서를 기증했다. 이 문서에는 일본 고쿠라 교회 납골당인 영생원의 최창화 목사의 조사 보고도 포함되어 있어, 1973년 당시 강제동원에 대한 조사와 일본, 한국 정부의 입장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이다.

공개구입 유물

만선개념도



1930년 일본에서 제작한 만주와 조선의 지도이다. 만주와 조선의 철도와 지역명이 아주 자세히 표시되어 있으며, 각종 통계수치와 함께 어류분포도 등이 화보집처럼 잘 그려져 있다. 이 어류분포도를 통해 당시 어족자원의 분포와 기후를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일제가 이러한 조선의 어족자원을 조사하고 연구하여 수탈해 갔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Docent

무더위 속 더 뜨거운 열정을 배워왔습니다

역사관 도슨트의 7월 대구 답사

대구 근대골목 투어 → 대구 근대역사관 → 희움 일본군'위안부' 역사관

윤수연 도슨트

이번 답사는 도슨트 선생님들과 처음으로 같이 가는 답사여서 시작 전부터 기대가 높았습니다. 대구에 도착하자마자 먹은 점심이 너무 맛있었고, 다 같이 든든하게 배를 채운 후 본격적인 답사를 시작했습니다. 대구 근대골목 투어와 대구근대역사관, 희움 일본군'위안부' 역사관을 관람할 때 해설사 선생님 덕분에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문가 선생님들의 해설을 들으며 전시 해설에 필요한 태도와 목소리 톤, 스토리텔링 기법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대구의 여름은 많이 더웠지만 도슨트 선생님들과 함께 더위를 이기며 역사 공부도 하고 좋은 추억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신 역사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수광 도슨트

2019년부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 도슨트로 활동하고 있으나, 관람객들에게 해설을 할 때마다 스스로 많은 부족함과 아쉬움을 느껴왔습니다. 2024년 7월 6일, 대구 근대골목 투어와 근대역사관, 희움 일본군'위안부' 역사관 등을 답사하면서 해설사가 관람객들을 대하는 태도, 열정, 해설 기법,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통해 관람객과 해설사 간의 아름다운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해설사 분은 친절하게 맞아주셨고, 땀을 뻘뻘 흘리며 열정적으로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다양한 해설 기법을 적용하여, 대구의 근대골목에 대한 깊은 전문성으로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투어 중 뜨거운 더위 속에 많이 걸었던 탓에 몸은 약간 지치기도 했지만, 근대역사관과 희움 일본군'위안부' 역사관 해설사 선생님들께서도 반갑게 맞아주셨고, 그분들의 열정적인 해설과 전시물에 대한 전문성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 관람객들에게 해설을 할 때는 찾아주시는 관람객들이 다른 곳을 거쳐서 오시는지, 아니면 처음 방문하시는지 등의 피로도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한 후, 관람객들에게 '개별화되고 차별화된 맞춤형 해설'을 제공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구 답사는 도슨트로서 저의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알차고 보람된 답사였습니다.

Docent



정은서 도슨트

7월 여름,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도슨트로서 '대구 근대골목'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인근에 위치한 부산박물관과 유엔평화기념관 등 부산 위주의 역사와 문화만 접해 왔던 저에게 이번 답사는 타 지역인 대구의 근대문화 발자취를 따라 탐방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대구의 박물관이나 역사적인 공간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터라, 답사 며칠 전에는 예정된 답사장소를 검색해 보며 조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대구근대역사관은 요즘 사용하는 SNS에도 사진이 많이 올라올 만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 더욱 기대가 컸습니다.

이번 답사의 가장 큰 수확은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전시 해설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근대 문화 골목투어와 대구근대역사관에서 일하시는 해설사분들의 설명을 들으며 제 해설 방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답사 내내 모든 해설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설명해 주셨고, 진정으로 이 일을 좋아하고 즐기며 관람객들과 소통한다는 느낌을 주셔서 기억에 정말 오랫동안 남을 것 같습니다. 답사를 다녀온 이후에는 저의 해설 방식과 관람객을 대하는 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학 생활을 갓 시작하며 우연히 보게 된 도슨트 모집 공고에 지원해 2020년부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도슨트로 활동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몇 년 동안 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작년부터는 활발히 활동할 수 있게 되어 많은 관람객을 만나고 해설을 하며 잊지 못할 좋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모든 도슨트 활동이 의미 있었고, 함께한 도슨트 선생님들과의 교류를 통해 제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점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10월을 끝으로 저는 도슨트 활동을 마무리하지만, 앞으로 다른 도슨트 선생님들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 의미 있는 시간 보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Docent

도슨트의 특별활동

역사관 포모즈

역사관 도슨트들은 일제강점기와 일제강제동원 관련 주제로 공오일에프엠 <역사관 포모즈>에서 매월 1회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인정 받아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주최하는 시민미디어축제에서 <역사관 포모즈>가 상을 받는다는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역사관 도슨트들의 열정을 칭찬해주세요.

공오일에프엠
051FM

진행자 배병용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2년 차 청년 도슨트이자 <역사관 포모즈> 라는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배병용입니다. 공오일에프엠 팟캐스트와는 작년 9월부터 인연이 닿아 3회 정도 게스트로 출연하다가, 지난 7월부터 녹음과 대본 작성,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것은 매회 고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매 회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녹음 당일에는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날의 분위기에 맞는 화제나 질문거리를 준비하고는 합니다. 때로는 돌발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팟캐스트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은 배움의 연속입니다. 게스트로 나오시는 다른 도슨트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도슨트 활동에 도움이 되는 팁을 얻기도 하고, 저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서 많은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기분 전환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녹음 경험은 다른 분들보다 많지만, 때로는 긴장하고 실수도 하는, 아직 서투른 진행자입니다. 앞으로도 <역사관 포모즈>를 통해 도슨트의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도슨트 권주련

처음 팟캐스트에 대해 들었을 때,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영상을 녹화해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대단한 유튜버들만 하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잘 해낼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처음 녹화를 시작했고, 어느새 두 번째 녹화를 마쳤습니다. 되돌아보니 도슨트 활동이 아니었다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역사관에서 전시 해설을 하면서 관람객들과 소통하는 것도 즐겁지만, 특정한 주제로 동료 선생님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뜻깊었습니다. 제가 참여한 팟캐스트의 첫 번째 주제는 설날, 두 번째 주제는 추석이었습니다. 두 명절을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더 재미있게 촬영했습니다. 부족한 실력이지만 항상 관심 가져주시는 관람객 여러분들 덕분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역사관과 도슨트 활동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도슨트 새사랑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통해 처음으로 팟캐스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처음이다 보니 긴장도 많이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이라 설레는 마음도 컸습니다.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동안 대본을 작성하는 과정과 제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고민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녹음이 끝난 후에는 부족함을 느끼고 실수도 있어 후회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진행자이신 배병용 선생님과 함께 참여하신 권주련 선생님 덕분에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로장학생 체험기

역사관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2024년 국가근로장학금 하계방학 집중 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양한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5명의 근로장학생이 여름방학 기간 역사관에서 근무하였다. 그중 노민수 장학생의 후기를 소개한다.

노민수 국가근로장학생

두 달이라는 기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역사관에서 일하기 전에는 단순히 역사 공부를 더 할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지원하였지만, 어린이체험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며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프로그램들을 즐기는 아이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고, 어린이들과 직접 소통하고 유대를 쌓으며 저도 동심으로 돌아간 듯 한 기분이었습니다.

근무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역사관 설립 후 가장 많은 방문객이 방문했다는 올해 광복절에는 어린이체험관도 인산인해를 이뤘기에 정말 정신이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부모님과 같이 온 아이들이 광복절을 그저 쉬는 날이 아닌 해방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로 기억해 줄 것이라는 생각에 힘을 냈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친절하게 도움을 주신 많은 직원분들께 감사드리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두 달 동안 항상 밝은 모습으로 세심하게 챙겨주셨던 송소미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옆에서 보고 배우며, 저도 선생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일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어엿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일원으로서 방문객들에게 아픈 역사를 알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이 근로 기간이 전혀 아깝지 않고 보람찬 시간이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곳의 근로를 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4층부터 6층까지 이어진 전시관을 천천히 관람해 보는 시간을 가지신다면 더욱 뜻깊은 근로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역사관에는 포모 가족이라는 귀여운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귀여운 것을 좋아하신다면 역사관 근무를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역사관을 찾은 사람들



2024. 08. 31
동아대학교·리쓰메이칸대학

동아대학교 국제대학 일본학과 전공 학생들과 일본 교토 리쓰메이칸대학 학생들이 교류 세미나를 개최하고, 역사 인식을 함양하기 위해 역사관을 방문하였다. 두 학교는 국제협정을 체결하고, 세미나를 통해 근현대 역사에 관한 양국 간의 갈등을 극복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2024. 09. 05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와 중국 흑룡강성사회과학원이 '일제의 아시아 침략 전쟁과 민중의 피해'라는 주제로 공동 주최한 '제21회 항일역사문제 한중 국제 학술회의'를 마친 후, 양국 학자들이 역사관을 방문하여 관람하였다.



2024. 10. 18
부산고등검찰청
송경호 검사장과 간부들

부산고등검찰청 송경호 신임 검사장과 직원들이 역사관을 방문하였다. 추모탑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및 희생자들에게 묵념하는 시간을 가지고 역사관 전시실 내부를 관람하였다.

2024. 10. 29 샬롬자유학교



가평의 샬롬자유학교 학생들이 역사관을 방문하여 도슨트 해설과 함께 전시실을 둘러보고 직원들과 면담 시간을 가졌다. 학습에 주도권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샬롬자유학교 학생들의 방문 후기

원주아 학생

인터뷰를 통해 감정을 담지 않더라도 우리의 역사는 분명히 드러나며, 이를 바탕으로 모두와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일본을 무작정 미워하기보다는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려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에스더 학생

한국과 일본이 서로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함께 미래로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한쪽에 치우친 시각으로 역사를 보면 왜곡된 진실만 보게 될 수 있다는 점도 깨달았다. 이제부터는 역사를 볼 때 한쪽의 입장만이 아니라 양쪽의 시각을 균형있게 살펴야겠다고 다짐했다.



한승수 학생

인터뷰에서 역사는 사실을 중심으로 중립적으로 봐야 한다고 하셨다. 또한, 글을 쓸 때 '아픈 역사'와 같은 표현도 지양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을 통해 역사를 바르게 볼 수 있게 되어 좋았다. 앞으로 여러 역사관을 방문하고 공부할 때, 단순히 일본이 나쁘다고만 생각하기보다는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양국의 시각을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해림 학생

인터뷰에서 강조하신 것 중 하나는 역사를 감정이 아닌 사실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이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본 후, 역사를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더 명확하고 정확한 입장을 세울 수 있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역사를 바라보는 방식을 새롭게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김동민 학생

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의 인터뷰를 통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밝은 미래란 무엇인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나쁘고 누가 불쌍하다는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정확히 알고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매월 4일은 '역사관 안전점검의 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7(국민안전의 날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의(안전점검의 날 등)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역사관 안전점검의 날'

역사관은 관람객들에게 안전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 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며,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매월 '안전점검의 날'에는 역사관 전 직원이 참여하여 안전사고 예방 교육·위험성 평가 관련 교육·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동절기에는 해빙기 특별 안전점검을, 하절기에는 장마 대비 배수로 정비를 진행하여 계절에 맞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역사관 7층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인 '어린이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점검과 안전사고 방지법·대처법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코드아담 교육을 통해 관내 미아가 발생했을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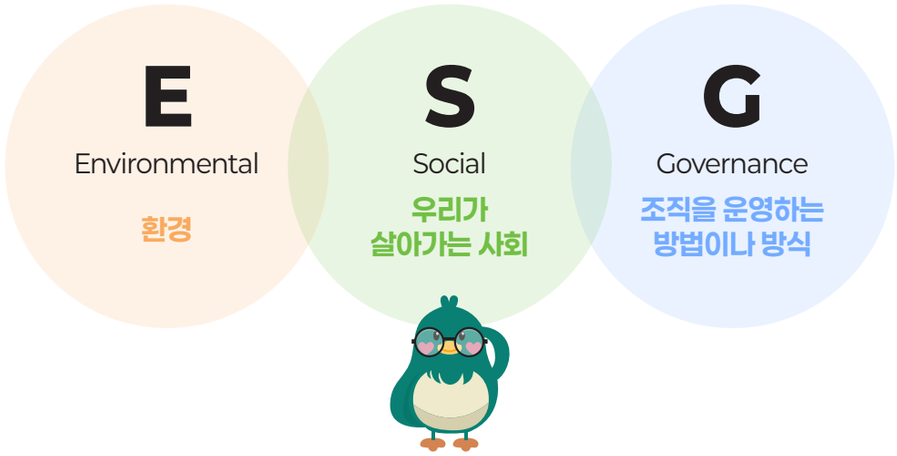

3


4

1. 기계·전기실 현장 안전교육　2. 장마 대비 배수로를 청소하는 역사관 직원들　3. 심폐소생술 교육　4. 7층 어린이체험관 안전 사고 예방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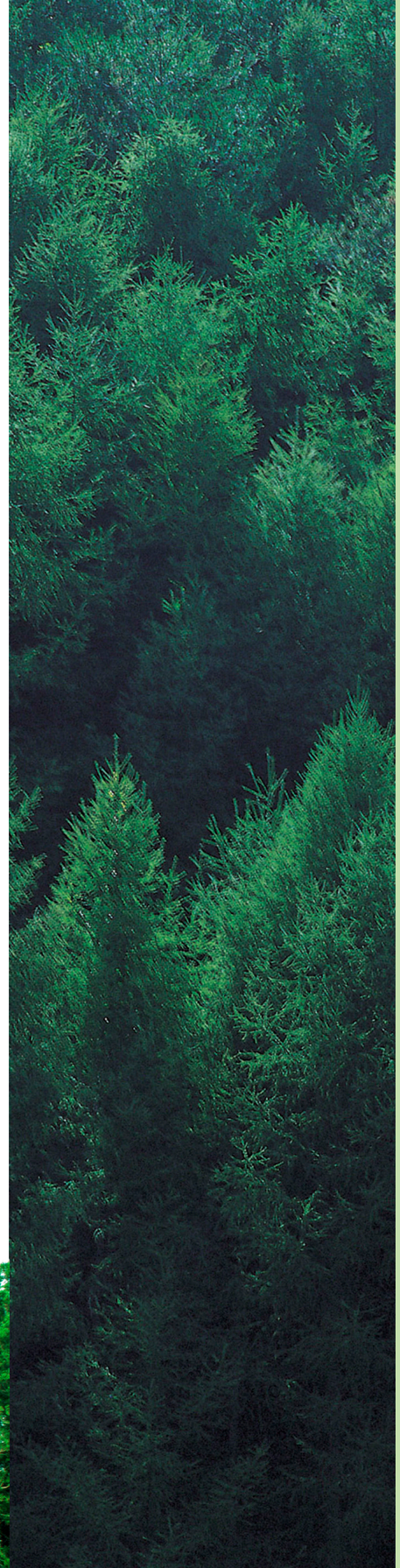
알아봅시다, ESG 경영

환경 E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S 조직을 운영하는 방법 G 을
생각하면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을 말해요.



ESG 경영이란, 환경을 생각하고, 지역사회와 공생하며,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관을 운영하면서 단기적인 이익이나 편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도 함께 고려하는 경영방식이다. 역사관도 ESG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우리가 속한 환경과 지역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실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24년, 역사관은 ESG 경영을 위해 어떤 일들을 했을까?





환경(Environment)

역사관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친환경 가치를 확산하고자 노력해왔다.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역사관 환경정화의 날'로 지정하여, 역사관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역사관 주변을 청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반려견과 함께 역사관 주변을 산책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올바른 펫티켓(Petiquette)을 홍보하고 생분해 가능한 배변봉투를 증정하는 캠페인도 진행했다. 환경 보전을 위해 역사관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을 지향하며, 전시·교육·행사 등에 사용하는 종이를 최소화하고, 친환경 용지와 콩기름을 사용해 인쇄물을 제작하고 있다.

지역 사회(Social)

역사관은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지역민이 가까이에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전시와 주요 기념일 행사, 다양한 연령대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일제강제동원의 역사를 알리고자 했다. 또 다양한 지역 축제에 참가하여 부스를 운영하기도 했다. 2020년부터는 일제강제동원으로 외국에 끌려가 실종되거나 사망하여 유골을 봉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위패를 안치하는 '기억의 터'를 운영하여 일제강제동원 전문기관으로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직 운영(Governance)

역사관은 투명하고 관람객 친화적인 경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역사관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각 사업 분야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알리오와 사업실명제 등을 통해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이용객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소통 채널을 다변화했다. 역사관은 부산 지역민 맞춤형 채널부터 타 지역 사람들도 역사관의 정보를 알 수 있는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각 SNS를 통해 다양한 공모전을 시행하여 SNS 이용자들이 역사관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역사관의 ESG 경영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소감

‘포모 플로깅’ 참여자

성지인(9월 25일, 에어부산 승무원 자원봉사팀 ‘Blue Angle’)

대학교를 졸업한 후, 처음으로 한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선선한 날씨에 역사관 주변을 걸으면서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수많은 쓰레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풀숲에서 커다란 음식물 쓰레기 봉지를 치웠고, 그 덕에 쓰왕(쓰레기왕)이 되었습니다. 주운 쓰레기의 크기만큼 정말 알차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김지은(9월 25일, 에어부산 승무원 자원봉사팀 ‘Blue Angle’)

10년 만에 온, 어릴 적 살았던 동네에서 하는 봉사활동이라 기분이 남달랐습니다. 오늘 큰 쓰레기를 주워 쓰왕(쓰레기왕)으로 임명되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역사관이 생긴 것을 알고도 이런저런 핑계로 와보지 못했는데 오늘을 기회 삼아 관람도 했습니다. 뜻깊은 추억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승민(8월 28일, 플로깅 참여자)

플로깅을 하면서 봉사심을 기르게 되었고,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하면서 협업 능력도 기르게 됐습니다. 비가 내려도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사전 공지가 있었지만, 당일 태풍 간접 영향권으로 폭우가 내려 플로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추후에는 비가 온다면 역사관 내부에서 유사한 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서준(8월 28일, 플로깅 참여자)

한 달에 한 번 있는 봉사라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큰 쓰레기가 나와서 놀랐습니다. 평소에 쓰레기를 주울 일이 없었는데, 이번 봉사를 통해 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8월 28일 플로깅 참여자들의 모습



9월 25일 에어부산 승무원 자원봉사팀 'Blue Angle'과 함께한 플로깅





역사관의 ESG 경영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소감

‘댕댕이와 함께 푸른 걸음’ 자원봉사자

9월 18일 오후, 역사관에서 ‘댕댕이와 함께 푸른 걸음’ 이벤트를 진행하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관람객들에게 역사관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확인한 후 생분해 강아지 배변봉투를 지급하고, 산책 에티켓을 안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역사관에서 안내 봉사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 친근하고 편안하게 봉사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참여한 역사관의 ‘댕댕이와 함께 푸른 걸음’ 이벤트는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고, 보람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무거운 분위기를 떠올리기 마련인 역사관에서 동물과 함께 하는 행사가 열린다는 것이 독특하고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반려동물과 산책을 즐기며 자연스럽게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관람객들은 이 이벤트를 매우 좋아하셨고, 저 역시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끼며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안내 업무였지만, 한 분 한 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관람객들에게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데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네이버 블로거
mxzzi님의 후기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공익신고·신고자 보호·지원제도 알아보기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23년 8월 기준 471개)의 행정처분이나 벌칙의 대상이 되는것

☑ 공익침해행위신고방법



1. 국민권익위원회나 조사기관, 수사기관 등 공익신고 기관에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히고(실명신고)
3. 불법행위의 내용과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 작성한 뒤
4.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비실명대리신고방법



1.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2. 신고자 인적사항을 봉인한 채 변호사에게 신고를 위임하면
3.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신하여 변호사 명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리 신고를 합니다.

☑ 공익신고자보호·지원제도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및 제30조에 비밀보장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신고자 동의없이 다른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상담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

역사관은 9월 8일, 부산 남구청과 함께 역사관 옥외 주차장에서 귀성 전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했다. 행사 참여를 신청한 차량 70여 대의 엔진 오일, 브레이크 패드 등 소모품 점검, 타이어 공기압·마모 상태를 확인했고 우천에 대비해 전 차량의 와이퍼를 신품으로 교체했다.
점검을 받은 주민들은 “이번 행사가 안전한 귀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설립 취지와 사업에 대해 알게 되어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행사장에는 오은택 남구청장이 방문해 역사관과 남구청 직원들을 격려하고 지역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 모습

더 나은 역사관을 만들어주세요

FoMo 2024년 역사관 소식지 만족도 조사

온라인 참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주요 소식을 담아
연 2회 발행하는 소식지 『FoMo』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본 만족도 조사의 결과는 보다 유익한 소식지로 거듭나기 위한 소중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온라인 참여자는 QR코드로 참여해 주시고, 오프라인 참여자는 설문 응답 후 해당 페이지를 오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으로 보내주세요.

- **주소:** (48532)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 320번길 100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소식지 담당자 앞

※ 설문에 응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 **응답기간:**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 12월 12일 금요일 18:00까지
- **경품지급:**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

1. 경품 응모와 추첨, 경품 발송을 위해 '휴대폰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미 기입하셔도 설문에 참여 가능하지만, 경품 응모에서는 제외됩니다. 기입하신 개인정보는 경품 제공에만 이용하며, 경품 지급 완료 후 파기합니다.(예시 : 010-0000-0000)

2.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3. 귀하의 연령대는?
① 20대 미만 ② 20대 ③ 30대 ④ 50대 ⑤ 50대 ⑥ 60대 ⑦ 70대 이상

4. 귀하의 거주지를 알려주세요.
① 서울 ② 경기 ③ 인천 ④ 대전 ⑤ 대구 ⑥ 울산 ⑦ 광주 ⑧ 부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세종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5. 소식지 FoMo 구독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④ 답변자는 6-1 질문으로 이동, ①~③ 답변자는 6-2 질문으로 이동)
① 2년 미만 ② 2년 이상 ③ 가끔 본다. ④ 보지 않는다.

6-1. 소식지 FoMo를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소식지를 알지 못했다. ② 정보가 많지 않다. ③ 재미가 없다. ④ 구독하지 않는다.
⑤ 기타(　　)

6-2. 소식지 FoMo를 어떤 방법으로 구독하고 계신가요?
① 역사관에서 발송 받는다. ② 온라인(홈페이지, SNS, 카카오톡 채널 등) ③ 역사관 비치용
④ 기타(　　)

7. 소식지 FoMo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1~5점)

8. 소식지 FoMo가 재단·역사관의 정보와 소식을 파악하는 데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1~5점)

9. 현재 기사의 글자 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① 적당하다. ② 더 커져야 한다. ③ 조금 줄여도 된다.

10. 소식지 FoMo는 재단과 역사관의 사업소식, 특집기사 등을 담고 있습니다. 2024년 소식지에서 귀하가 관심 있게 읽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① 전국합동위령제, 추도순례 등 유족지원사업 ② 역사관 전시·교육·행사 등 문화사업
③ 유족 인터뷰 ④ 일제강제동원·일제강점기 관련 특집기사(우키시마호 등)
⑤ 역사관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도슨트, 자원봉사자, 근로장학생 등)의 후기
⑥ 기타(　　)

11. 2023년부터 소식지 FoMo를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발행 횟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만족한다. ② 계간 발행(봄, 여름, 가을, 겨울 연 4회) 선호 ③ 연간 발행(연 1회) 선호

12. 2025년 소식지 FoMo에서 지면을 확대했으면 하는 콘텐츠가 있으신가요? (중복선택 가능)
① 현재 구성에 만족한다. ② 유족지원사업 관련 내용 확대 ③ 다양한 특집기사 수록
④ 역사관 관람객 후기 ⑤ 재단·역사관 사업 소식 홍보 ⑥ 국내외 강제동원지 탐방
⑦ 기타(　　)

13. 소식지 FoMo에 신설했으면 하는 콘텐츠 또는 개선사항, 좋았던 점 등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소식지 FoMo의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